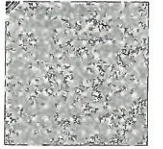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402호 2022년 7월 10일(다해)

연중 제15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시편 17(16), 15 참조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흡족하리이다.

제1독서 | 신명 30, 10-14

화답송 | 시편 69(68), 14와 17.30-31.33-34.36 그리고 37(◎ 33 참조)

◎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입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
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
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 가련한 저는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를 도우시어 보호
하소서. 하느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감사 노래로 그분을
기리리라. ◎

○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
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

○ 하느님은 시온을 구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신다. 그분 종
들의 후손이 그 땅을 물려받아, 그분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
곳에 살리라. ◎

제2독서 | 콜로 1, 15-20

복음환호송 | 요한 6, 63.6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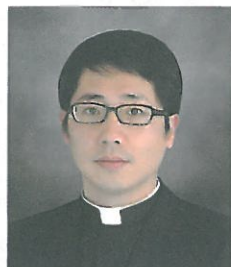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
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복음 | 루카 10, 25-37

영성체송 | 시편 84(83), 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
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
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이웃

‘이웃’이라는 단어는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이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1독서(신명 30,10-14)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관계 안에 머물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곁에 있는 이웃처럼 의인화되어 묘사됩니다.

제2독서(골로 1,15-20)는 ‘그리스도 찬가’라고도 불리는데, 심오한 구원과 신앙의 진리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세상 창조의 원리로 소개됩니다. 만물은 “그분 안에서 ...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으며,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성자의 십자가 죽음은 구원의 충만함을 완성했기에,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다는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이웃처럼 이해됩니다.

복음(루카 10,25-37)은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되물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네 마

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과 레위기 19장 18절(“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을 인용합니다. 이어서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강도를 만나 초추점이 된 어떤 유대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십니다. 당시 사회적 명망이 높았던 사제와 레위인은 죽음 직전에 이른 동족을 보고 모르는 체하지만, 유대인들이 평소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극진한 대우와 치료를 해줍니다. 이 대목에서 루카 복음사가는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루카 10,33)라고 묘사합니다. 이처럼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웃은 상대방에게 연민을 느끼고 아픔에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사회·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대를 살다 보니 심리적으로 아픈 이웃을 봅니다. 증간소음, 분노조절장애, 피해망상증, 나르시시즘, 가스라이팅 등에 사로잡힌 이웃 때문에 일상에서 ‘생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구약의 백성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신앙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을 보내며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이웃으로 살고 있는지, 아픈 이웃을 향해 연민과 공감과 자비를 얼마나 품고 있는지 돌아보면 어떨까요?



남양성모성지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루카 10,29)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마음이 힘겨운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내어 보이는 것이 쉽지 않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호소 안에는 큰 용기가 서려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도움 청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이웃의 소리를 들어 봅니다. 함께 있음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앉아 기도합니다. 친구여, 작은 기도지만 보태 드릴게요.



홍덕희 아녜스 | 가톨릭사진가회



어머니의 '삶의 활력소'

작년 2월, 친구들과 함께 명동밥집 봉사 신청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명동밥집 급식 상황이 조심스러워지면서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3월 말에 사랑하는 아빠가 선종하셨습니다.

어머니는 80이 넘는 연세에 편찮으신 아버지를 간병하시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상태셨습니다. 게다가 비록 고단한 남편의 병간호는 끝났지만, 아버지가 떠난 빈자리에 혼자라는 외로움과 허탈감, 무기력함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무작정 명동밥집 사무국장님께 전화를 드려 어머니와 함께, 빨리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작년 5월부터 짝수 주 수요일에 명동밥집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또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리는 고된 여정임에도 어머니는 마치 소풍 가는 어린이처럼 2주에 한 번 돌아오는 수요일만을 손꼽아 기다리십니다. 명동밥집 봉사 중에도 손님이 없을 때는 잠시 앉아 쉬셔도 된다고 해도 절대 앉지 않으십니다.

저마다 사연을 갖고 명동밥집을 찾으시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면서, 편찮으셨던 아빠를 대신해 더 힘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음이 행복하고,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명동밥집 봉사가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하늘에 계신 아빠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몸도 많이 약해지시고 연세도 많으셔서 오히려 봉사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신부님들과 봉사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응원 덕분에 더 기쁘게 삶의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아 감사



한상연 요안나 | 명동밥집 봉사자

한 마음뿐입니다. 함께 배식하시는 짝꿍분들과 친해지셔서 오히려 제가 뒷전이 될 때도 있으니까요. 명동밥집에 봉사하러 가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서, 요즘엔 식사 잘하시고 운동으로 건강관리 잘하셔야 명동밥집 봉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반헛박(?)을 하기도 합니다. 어머니 집에서는 성당이 멀어서 평일에는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데, 봉사 가는 길에 함께 드리는 명동성당의 수요일 10시 미사는 명동밥집 봉사를 통해 받는 하느님의 또 다른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두 개의 손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는 나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는 어느 유명 여배우의 말처럼, 받는 것보다는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누는 봉사가 마냥 행복하기만 한 엄마와 은총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엄마의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두 손과 두발이 하루라도 더 부지런히 우리의 이웃을 위해 움직이며 하느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한껏 묵상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25

연옥 영혼이 살아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2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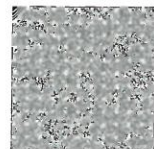
‘연옥에 있는 영혼은 스스로 기도하거나 천국에 갈 수 없다. 우리의 기도와 희생이 있어야만 그들을 도와 줄 수 있다!’ 맞는 말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습니다.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연옥 영혼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연옥 영혼 역시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결합되어 있기에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정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결합된 이들은 천상교회(개신교회, 승리교회) 혹은 지상교회(투쟁교회, 순례교회) 혹은 연옥교회(정화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인들의 통공’(communio sanctorum, 여기서 communio는 ‘친교’, ‘통공’이고, sanctorum은 ‘거룩한 사람들’(남성 복수 2격) 혹은 ‘거룩한 것들’(중성 복수 2격)로 번역될 수 있는데, ‘거룩함’은 하느님과 관련됩니다)이란 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기도와 공로가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세 교회에 온전히 속한 이들이 하느님 교회의 구성원이고, 이들의 기도는 ‘친교’하고, ‘통공’합니다.

중세 이래 ‘연옥’은 지옥과 비슷하게 오해되었습니다. 그 당시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고, 때론 준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하느님 사랑과 자비, 죄와 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적었고, 죄지으면 지옥 간다는 단순한 교리에 치중했습니다. 천국이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는 지복직관(1코린 13,12 참조)의 세계이고, 지옥이 하느님과 완전히 차단되어 고통받는 상태라면 그 중간상태인 연옥도 필요합니다. 연옥이란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보장받은 이가 천국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정화하는 상태입니다. 연옥 영혼의 정화

를 돕기 위해 지상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 희생, 자선, 보속 등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옥 영혼은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주제는 신학자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연옥을 인정하지 않는 개신교에서는 논의 자체가 불가하고, 일부 가톨릭 신학자들은 연옥에 있는 영혼은 죽음 이후 육신이 사라졌고, 더 이상 온전한 인격체가 아니기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거나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 주장도 많습니다. 기도하는 능력은 본래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속한 것입니다. 인간을 영혼과 육신으로 구분할 수 없지만, 육신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인간에서 영혼을 빼면 그저 흙의 먼지일 뿐입니다.(창세 2,7 참조) 영혼이란 육신을 인간으로 존재하게 하는 힘과 원리이고, 하느님과 관계 맺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의 단일체이지만, 그 둘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연옥에 있는 모든 영혼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거의 다다를 만큼 충분한 정화 과정을 거친 영혼은 지상의 우리보다 더 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옥교회에 속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천국에 머무는 존재 역시 영과 육의 단일체가 아니라, 아직은 영혼이 구원된 존재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진다고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가졌던 모세



허영엽 마티아 신부 |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우뚝 선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탈출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집트에 내려간 야콥의 일가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훗날 요셉을 모르는 새 파라오가 등장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위협을 느끼고 탄압정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탈출 1장 참조)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모두 강에 던져 버리고, 딸은 살려주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최악의 상태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학살을 피해 모세를 바구니에 실어 강물에 띄워 보내고, 다행히 파라오의 딸이 발견한 모세는 이집트 궁정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모세는 완전한 이집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삶 안에서 점차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집트인인가 아니면 히브리인인가?”라는 갈등말이죠. 이는 외국 이민자들의 자녀 세대에서 잘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모세의 내면은 두 명의 어머니와 다른 민족성, 상이한 종교와 문화의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병리적인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와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고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이 바로 자신의 동족임을 알고 갈등하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결국 권력의 주변을 맴돌 수밖에 없는 이방인인 자신의 처지를 인식했을 것입니다. 내적

인 갈등과 이중적인 가치관은 모세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었을 테고, 갈등으로 인한 불안을 억압하면서 살았겠지요. 그러던 중 40세쯤 되었을 때 모세는 노예들을 감시하던 이집트 경비병과 시비가 붙어 그를 죽이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 우연한 사건은 모세의 일생을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모세의 인생 여정과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수업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이 당신의 일꾼을 부르시고 쓰실 때는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 떼를 치는 목자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 떼를 몰고 호렙산을 지나던 그는 하느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타지 않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달려가죠. 그때 하느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무섭고 떨렸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고도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이지만, 결국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분명히 다혈질이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위인도 우리와 똑같이 부족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고 어떻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델(1685-1759)
사진출처: 음악의 역사(음악사 대도감)

음악칼럼

헨델 <옴브라 마이 푸(Ombra mai fu)>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스러운 나무 그늘이여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나무는 제자리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사시사철 모습을 바꿔가며 다채로움을 줍니다. 해마다 새잎을 내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죠. 또 가지만 앙상한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 어떤 것보다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훌쩍 커버린 키로 우리를 놀라게 하죠.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나무 아래서 여름날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영혼마저 쉴 수 있다면 어찌 그 나무가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심정으로 나무에 한껏 애정 표현을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Serse) 또는 크세르크세스(Xerxes)>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아리아 ‘어디에도 없던 나무 그늘이여(Ombra mai fu)’입니다.

바흐와 더불어 바로크 음악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작곡가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Georg Friedrich Händel, 1685~1759, 독일-영국)은 바흐와 같은 해,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서로 다른 행보로 종종 비교되는 음악가입니다. 바흐가 평생 독일을 벗어나지 않고 주로 교회음악과 교육용 음악을 작곡하며 스무 명의 자식을 둔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했다면, 헨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각지를 다니며 오페라를 비롯, 다양한 음악을 작곡한 음악가이자 흥행사였습니다.

<세르세>는 1738년 런던 초연 당시 관객으로부터 외면받았습니다. 이유는 이전 오페라와 달리 짧은 아리아들, 진지한 내용과 희극적 내용이 섞인 어색한 분위기 때문이었죠. 다행히 20세기 초 재조명되면서 오늘날 헨델의 가장 사랑받는 아리아로 살아났으니, 사람이 그렇듯, 작품의 운명 또한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이 오페라

의 주인공은 기원전 470년경 고대 페르시아의 왕 세르세(크세르크세스의 이탈리아어 표현)입니다. 실존 인물이지만 오페라의 내용은 다분히 허구입니다. 이미 약혼녀가 있으면서 동생의 연인을 사랑하는 세르세 왕과 또 다른 엇갈린 사랑들이 일대 혼란과 질투, 복수를 일으키다가 마지막에 용서와 화해로 끝맺죠.

이 오페라에서, 아니 헨델의 모든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인 ‘어디에도 없던 나무 그늘이여(Ombra mai fu)’는 헨델 시대에는 거세 남성 가수인 카스트라토(castrato)가 불렀으나 카스트라토가 없어진 이후엔 여성 메조소프라노나 고음역의 남성 성악가 카운터테너(countertenor)가 부릅니다. 남성 역할이지만 고운 음성으로 부르죠. 오페라가 시작되면 1막에서 바로 세르세 왕이 무성한 잎으로 그늘을 드리운 플라타너스 나무를 칭송하다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어디에도 없던, 사랑스럽고 다정한, 감미로운 나무 그늘이여(Ombra mai fu di vegetabile, cara ed amabile soave piu)” 최고의 신분이지만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 세르세 왕의 외로움이 배어 있는 이 고아한 멜로디는 듣는 이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렇기에 기악곡으로도 편곡되어 ‘라르고(Largo)’라는 제목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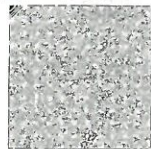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무 그늘, 여러분만의 그 나무 그늘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겠지요?



헨델 / 어디에도 없던 나무 그늘이여
노래: 프랑코 파지올리 (카운터테너)



헨델 / 라르고
런던 교향악단 (지휘: 조지 셀)



성당 공간의 본질은 '통하여', '함께', '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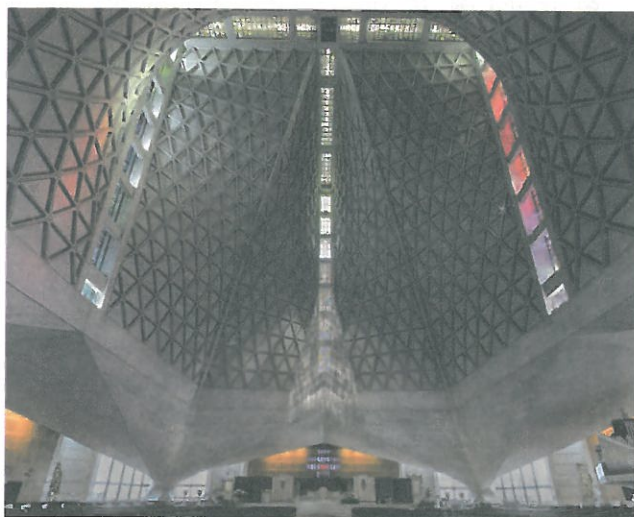
김광현 안드레아 |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사제는 성반과 성작을 받들어 올리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라며 ‘마침 영광송’을 바칩니다. 이때 세 전치사, ‘통하여(per, through)’, ‘함께(cum, with)’, ‘안에서(in, in)’는 모두 공간적인 단어입니다. ‘통하여’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지나가는 것이고, ‘함께’란 한자리에 있는 것이며, ‘안에서’는 무언가에 에워싸여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당 건축의 공간적 본질은 이 세 전치사로 요약됩니다. 먼저 성당의 문을 열면 그리스도께서 제대로 나아가시는 긴 통로가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제대에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러하셨듯이 그 통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걸으시는 길입니다. 넓은 회중석은 두 제자와 ‘함께’ 묵으려고 들어가신 집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향해하는 배이기도 합니다. 성체를 영하는 제대는 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던 식탁입니다. 그뿐인가요?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면 높은 천장이 하느님이 머무시는 하늘처럼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견고한 벽과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가 넓게 트인 공간을 에워싸며 우리를 ‘안’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변화하는 내적인 힘을 더 깊이 느낍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성모 승천 대성당은 ‘통하여’, ‘함께’, ‘안에서’라는 세 개의 공간적 본질을 탁월하게 구현했습니다. 문을 열면 행렬 통로를 ‘통하여’ 나아가야 할 제대가 높이 솟은 지붕 아래 저쪽에서 보입니다. 제대 뒤에는 푸른 십자가가 빛나고 있고, 위로는 육중한 테두리 보가 나지막한 삼각형으로 비스듬히 깎여 있습



성모 승천 대성당 피에르 루이지 네르비(Pier Luigi Nervi) 설계, 1971년 샌프란시스코

니다. 그 위로는 높이 매달려 빛나는 조각물이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려고 정사각형 평면에 회중석을 부채꼴로 배치했고, 제단은 회중석을 향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평면의 모퉁이에서는 비스듬하게 뻗은 네 개의 기둥 위로 육중한 테두리 보를 두고, 그 위에 셸 구조의 거대한 지붕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붕은 십자로 교차하는 스테인드글라스의 빛을 받으며 회중을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해 줍니다.

사제가 ‘마침 영광송’을 노래로 바치면 ‘통하여’, ‘함께’, ‘안에서’가 공간 속으로 넓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 ‘마침 영광송’의 동작과 노래를 성모 승천 대성당의 공간과 함께 보고 듣고 받아들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의미는 훨씬 더 높고 깊고 넓고 우렁차게 울릴 것입니다. 성당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를 공간으로 드러내는 건축이기 때문입니다. 성당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성당 건축을 보고 읽을 때, 이 세 전치사가 지니는 성당의 공간적 본질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전대사 안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제정하신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2022년 7월 24일)을 맞이하여, 사도좌 내사원에서는 신자들의 신심을 강화하고 영혼들의 구원을 북돋우려는 목적에서 전대사를 수여하였습니다.

- <전대사 조건> -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2022년 7월 24일)’에

1.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고

2. 영성체를 하고

3. 교황님의 7월 기도 지향인 ‘노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래 내용 중 하나를 실천할 경우 모든 신자들은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진정한 참회와 사랑의 정신으로 미사에 참여하기
- ②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연로한 형제자매들(병든 이들, 버려진 이들, 장애인)을 방문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만나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 연로한 병자와 중대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신자는 모든 죄를 멀리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전대사의 통상 조건(1~3)을 충족하려는 지향으로, 이날의 거룩한 예식들에 영적으로 일치하여, 특히 교황 성하의 말씀과 교구의 관련 여러 예식이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동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신들의 기도와 삶의 고난과 고통을 봉헌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92년 7월 15일 허창덕 치료 신부(73세)
- 1997년 7월 12일 정옥진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78세)
- 2009년 7월 16일 이병문 베드로 신부(65세)

교구청알림

‘슬픔 속 희망찾기’ 월례미사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매월 세번째(토) 7월16일 10시(목구기도), 10시 30분(유가족 미사)
 곳: 명동대성당 옆 영성센터 경당(상설교해소 건물)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김승구 신부 개인전: 1전시실
 전시일정: 7월6일(수)~11일(월)
 염동국 신부 개인전: 2전시실
 전시일정: 7월6일(수)~18일(월)
 ‘기억과 희망’ 초조각전: 1전시실
 전시일정: 7월13일(수)~18일(월)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2-2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건진성사를 받은 서울대교구 신자 / 회비: 10만원
 때: 8월10일~12월21일 매주(수) / 20주 과정
 곳: 가톨릭회관(명동) / 신청기한: 7월29일(금)까지
 문의(접수):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www.catholicpolice.or.kr) 참조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76-8405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곳: 7월16일(토) 15시부터, 가톨릭회관 7층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7월12일 13시30분~16시30분 매월 두번째(화)
 곳: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2년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등(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tcpc@seoul.catholic.kr)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도

주님, 저에게 장수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피신하는 이들이
 언제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오, 주님, 저의 체념과 절망을 용서하시고
 저의 기력이 쇠하여도 저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미래를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희망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치시고
 제가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저를 주님의 은유함의 혁명을 이루는 장인으로 삼으시어
 저의 손주들과 주님 안에서 쉼 곳을 찾는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지키게 하소서.

오, 주님, 프란치스코 교황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외로움에서 구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끄소서. 아멘.

제2차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념 사진 공모

제2차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념 사진 공모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할래요’

응모 자격: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자면 누구나
 주제: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한 행복한 모습(조부모와 손자녀 모습이 꼭 담겨야 함) / 작품규격: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원본파일)
 출품수: 1인 최대 10점 이내 / 접수기간: 7월31일(일)까지
 접수방법: 노인사목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isenior@hanmail.net) 접수
 문의: 02)727-2386 서울대교구 사목국 노인사목팀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https://isenior.catholic.or.kr) 참조

2022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하반기 교회음악가자격증 과정 모집

서울대교구장 인준의 전문(중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 원서접수: 7월11일(월)~22일(금)
 대상: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기전문과정 중급 이상의 실기 능력을 가진 자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접수방법: 아카데미 사무국 전화문의의 요망
 문의: 02)393-2213~5(http://www.casm.site) 성음악위원회

개강일정	9월 개강
하반기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학기운영	3학기 과정, 직장인을 위한 주중 저녁, 주말반 운영
입시일정	원서접수 → 면접전형(실기) → 합격자발표 → 등록

인문단'제 일력

모임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매,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두성심의 일치 묵상 피정(마리아학교)

강의, 묵상, 미사(무료 피정) / 문의: 010-9620-4820
매, 곳: 7월18일(월) 10시~13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노들담 청년 교회문화통동 모임

매: 7월19일~12월20일 매주(화) 20시(1시간)
곳: 노들담교육관(북촌로54) / 대상: 39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3930-6730 노들담수녀회

호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매, 곳: 7월15일~18일·7월29일~8월1일·8월12일~15일
·8월26일~29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후원)
회비: 36만원(호소비 포함) /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젊은이 찬양의 광장(청년성령생애신봉사회 루하)

매주 금요일 저녁, 젊은이들을 위한 찬양 기도회
와 미사로 초대합니다 /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루하
매: 매주(금) 19시30분
곳: 천주교 성령생애신봉사회관(관악구 조원동) 3층
문의: 02)866-6345 / 인스타그램: @ruah.fiat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분당 단체 구반장
매: 7월23일~25일·7월31일~8월2일·9월3일~6일,
여름특별일정 8월6일~9일·8월13일~16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월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04차	7월15일(금)~23일(토)	문의: 061)373-3001,
제105차	8월12일(금)~20일(토)	010-3540-9001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 피정

주제: 링크, 다시 연결하기
선착순 접수 / 문의: 010-6608-3217 김종관 신부
중고등부 8월9일(화)~11일(목), 산청 성심원(경남)
일반부 8월13일(토)~15일(월), 가리파스 피정의 집(경기 양평)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곳: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문의(접수): 010-9099-2337(www.jesumaum.org)

예수마음기도	7월15일~17일(2박3일)
이나시오 영신수련	7월15일~17일(2박3일)
내적여정애니메이션(가본 과정)	7월22일~24일
사계절 하루 피정(여름)	7월23일

청년 피정 '주님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성심수녀회)

대상: 39세 이하 미혼 남녀 / 문의: 010-2059-9633
매: 8월19일 19시30분~21일 11시
곳: 예수마음배움터(경기도 파주시 한빛로21)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
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자연순례: 7월21일~23일, 7월30일~8월2일(우도),
8월6일~9일(우도), 8월12일~15일, 8월20일~22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입학생 모집

대상: 초5~고1 / 단기 1년 또는 장기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해외 학교법인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회비: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인천교구 지혜의샘(북방선교 기도공동체) 교육

열수 (월·수) 쉬은 맥성경(7월4일부터 시작): 1년 동안 신
구약 성경의 맥을 쉽고 재미있게 살펴보는 무료 교
육 과정입니다 / 문의: 010-5454-1871, 010-3248-9705
곳: 지혜의샘(부천시 송내동 366-5)

(월)	오전 구약 1강의, 오후 구약 2강의
(수)	오전 신약 1강의, 오후 신약 2강의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이론 교실(입문반)

강사: 오승민 수사(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김정미
매: 8월16일(화)~19일(금) 개강(12회 진행)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인원: 각 반별 0명
회비: 38만원(이론반, 개인본 별도)
문의(접수): 02)6364-2204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사무실
(화) 오후반 14시~17시 (금) 오전반 10시~13시
(수) 오전반 10시~13시, 저녁반 18시30분~21시30분
(목) 오전반 10시~13시, 오후반 14시~1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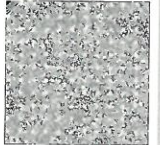
예수회센터 프로그램(9월 개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일상생활 안에 서의 영신수련	매 주(수) 10시 ~12시(17주 과정)	영신수련 동반자 양성 센터의 사제와 수도자들
그리스도교와 불교 간의 대화	매주(화) 14시~16시	서명원신부
영성과 철학상담-이론 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	매주(화) 19시~21시	박병준신부 홍경자교수
Zoom 강좌	영성성경-The Four Gospels' Different Accounts of Episodes of Jesus Life	매주(목) 18시~19시 반·19시 30분~20시30분 반
		Kister 신부

수제 목주 기초에서 전문까지

카페: cafe.naver.com/cmc04
문의: 010-5234-5044 가톨릭목공예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매, 곳: 초보자 화요일반 14시·금요일 오후반 14
시·금요일 저녁반 20시, 삼동역 본회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정희 신부)

살레시오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대상: 만 15세~40세 남자 / 취업지원(취업률 95% 이상)
매: 8월22일~2023년 3월31일
혜택: 교육비·기숙사비(선택) 무료
문의: 02)828-3600(www.donbosco.ac.kr)

모집

중앙보훈병원성당 연례회 회원 모집

문의: 010-5224-8131 이 시몬 연례회장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0세 이하 견진성사 받은 분 / 010-8735-4889

가양동성당 반주자 모집

교중미사 반주자 구합니다 / 소정의 봉사로 지급
문의: 010-9920-1995 단장

로사리오 성가단원 모집(4부 혼성)

매, 곳: 매주(월) 18시30분, 매현운봉길기념관(양재)
지도: 이종철 신부 / 문의: 010-3702-0132 조종미

가톨릭합창단 2022년 신입단원 모집

지휘: 최효영 신부 / 대상: 20~30대 남녀 교우
오디션: 7월16일(토) 13시 / 가톨릭성가 또는 자유곡
명동대성당 홈페이지 단체모집 공지 참조 / 010-5759-4861

미사

파티마 성모 발현 105주년 기념 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켈기도, 기념 미사 / 02)756-3473, 010-2759-3473
매, 곳: 7월13일(수)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파티마성모님 발현미사(팔로티회-천주교사도직회)

파티마성모님 발현미사에 초대드립니다
매, 곳: 7월13일 낮 12시, 자비의산(강원도 홍천군 남면
물구비길 160) / 문의: 010-6212-4450 장 바오로 신부

오기선 신부 32주기 황인국 목사님 1주기 추모미사

추모미사: 7월30일(토) 오전 10시30분, 용인시 용인
천주교묘지 김수환추기경기념경당(031-334-0807),
무료버스 예약접수: 010-8982-9819·02)2299-2296
명동대성당 8시 출발, 010-8936-2331·010-
5202-5145 절두산성지 8시 출발
집전: 김정수 신부, 오용진 신부 외 사제단

살레시오와 꿈 월레미사

지도: 심재현 신부 / 문의: 02)828-3500

때, 곳: 7월11일(월)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3호

글라셋선교수도회 서울후원회 월레미사

때, 곳: 7월18일(월) 11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

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6667-3001

인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or.kr)

카타리나 피정집 / 문의: 010-9715-1203

곳: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형성) / 개인, 취사가능

성안드레아 피정집 여름프로그램

초·중·고·청년 위탁 CAMP 및 자체 모임(수영장 구비)

때: 7월18일~8월21일 / 문의(접수): 032)465-0835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컷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 치료, 개인(우울·공황·분노·강박) 종합심리검사

인천교구 범박동성당 신축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 공모

공모 마감: 7월15일(금) / 일정 추후 공지

문의: 032)351-9911, 010-7566-2873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은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제23회 새천년복음화연구소 심포지엄

주제: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위한 교회의 역할

때, 곳: 7월16일(토) 14시~18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 02)2096-0412 새천년복음화연구소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최영민 신부(예수회) / 문의: 010-3173-2665

2023년 도림동성당 혼인미사 접수

거룩한 혼인미사(실내·야외 선택가능)를 위한 아

름다운 성전과 넓은 성도마당, 소형 기념미사 및

미니웨딩(10~20명 참석) / 문의: 02)833-9439

접수: 7월26일(화) 10시, 도림동성당 사무실 / 선착순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전문심리상담: 개인상담·정서불안·우울·분노·

성격 등의 어려움, 부부 및 가족상담·부부갈등·

의사소통의 어려움·자녀문제로 인한 갈등, 스

트레스·직장 내 어려움·대인관계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꽃 순교성지,

서릿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

문가 1급) / 문의: 010-9146-7654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명동) 501호
개인상담	정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갈등문제
상담교육	모래놀이 치료의 이론과 실습 7월16일~30일 (토) 15시~18시(3회)
미술심리상담사 2급 과정	7월25일~8월22일 (월) 10시~15시(5회)

직원모집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삼성, 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은평성모병원

근무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4시간 병원 상주) / 1522-9415

꾸르실로 회관 직원 모집 / 문의: 02)337-8588

분야: 미화 1명(계약직) / 대상: 세례받은 분(경험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우편 및 이메일(cursillo@catholic.or.kr) 접수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여름캠프 보조지도자 모집

업무: 어린이 여름 신앙캠프 보조진행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hanmaum84.com) 참조

문의: 031)840-0742 활동운영팀

대치3(성모탄신)성당 미화원 모집(계약직)

대상: 신자로 성실하신 분 / 근무: 주25시간(시간조정 가능)

업무: 성당 청소 및 제반사항 / 문의: 02)568-3656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방문·우편(우 06187,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90

길 19(대치동)) 및 이메일(kc7hoon@naver.com) 접수

세종로성당 사무장(계약직) 모집

분야: 사무장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행정, 회

계 업무, PC(엑셀·한글) 사용이 능숙한 분(본당 사무 경

력자 우대)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8월7일(일)까지 이메일(trina279@naver.com) 및 사무

실 방문·우편(우 03619,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9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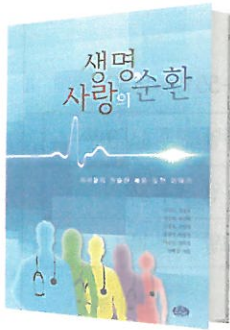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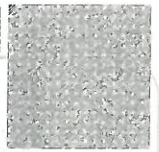
종로성당 사무실) 접수 / 문의: 02)733-1471 사무실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주 40시간
남녀 요양보호사	주 40시간 3교대, 기숙사 가능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7월16일(토) 14시	본원(경기도 남양주시)	010-4241-1210 성소 담당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7월24일(일) 9시	서울 본원(장충동)	010-8353-2323(osb3@hanmail.net)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7월17일(일) 13시30분~17시	본원(미아리)	010-9816-0072
예수고난회	7월23일(토) 11시~16시	명상의 집(우이동)	010-6804-4904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cumjesupassio@gmail.com)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7월16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한국의방선교회	8월7일(일)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생명, 사랑의 순환

김용민 외 10인 지음
도서출판 벽난로 | 288쪽 | 1만7천원
문의: 02)572-1943

11인의 의사들이 일상에서 일치 영성을 바탕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적 삶을 증거한 글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직업적 지식뿐만 아니라 이 경험들 안에 녹아 있는 윤리적, 철학적, 종교적, 더 나아가 존재론적 차원에 이르게 하며,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사랑'임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신간

강우일 주교의 숲길 단상

강우일 지음
바오로딸 | 308쪽 | 1만3천원
문의: 02)944-0944

강우일 주교의 단상, 칼럼,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 기행문 그리고 인터뷰 내용 등을 담은 책이다. 강우일 주교의 따뜻하고 연민 가득한 마음과 그리스도인이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가치와 태도를 향한 열정, 그리고 세상의 평화와 생태적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신간

아이에게서 배우다

서의규 지음
생활성서사 | 240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이를 낳고 믿음으로 키우면서 사랑을 배우는 부모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부모 자녀 동반 성장 에세이다. 이 책은 자녀를 양육하며 4년간 쓴 '아이의 성장기'이자 동시에 '진짜' 어른이자 부모가 되어 가는 '부모의 성장기'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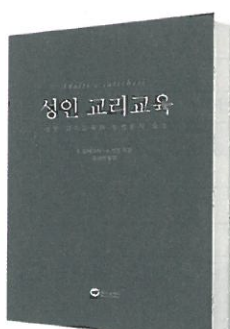


신간

희망의 순례자

기쁜소식 지음
기쁜소식 | 88쪽 | 1만원
문의: 02)762-1194

최양업 신부와 관련된 국내 성지와 교우촌 30곳의 간단한 소개와 성지순례에 필요한 팁 등이 실려 있다. 성지순례를 마친 후에는 배론성지에서 순례완주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배론성지에서 순례 완주자를 대상으로 주관하는 피정과 미사에 참석하여 가정 축복장과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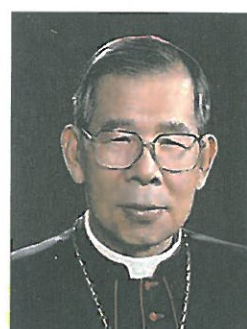


신간

성인 교리교육: 성인 교리교육의 방법론적 요소

E. 알베리치 & A. 빈즈 지음
위즈앤비즈 | 384쪽 | 1만8천원
문의: 031)986-7141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성인 교리교육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 이 책의 두 저자는 수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실천적인 관점을 갖춘 방법론적 지침에 부합하는 가장 좋은 성인 교리교육 방법이 무엇인지를 조명하면서 주석과 참고문헌을 풍성히 담아냈다.



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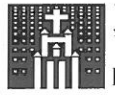
탄생 100주년 기념 연극 추기경, 김수환

입장권: S석 3만원, A석 1만5천원, 단체(20인 이상) 1만원 / 문의: 02)3789-7702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5명 20% 할인(10세 이상 관람 가능 / 10세~19세 1만원으로 청소년 할인)

1922년 순교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의 어린 시절부터 선종까지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 <추기경, 김수환>은 김수환 추기경의 삶을 조명하고, 종교와 시대를 초월한 참삶의 길에 대한 고인의 뜻을 기려 현대인들과 공감을 나누고자 하는 바람으로 기획됐다. (공연 일정: 7월 1일~10일, 서강대메리홀 | 7월 14일~15일, 대구 드림즈홀 | 7월 17일, 포항 요안나홀 | 7월 24일,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제2236(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회동상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영국(비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예비신자는 7월 10일(주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교리반	교리 시작 날짜	장소
수요반	6월 8일(수) 오후 8시~	교육관 304호
주일반	6월 12일(주일) 오전 9시~	

◎ 류시창 베드로 주임신부님 피정

일시 : 7월 18일(월)~27일(수)

※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반디주일학교 여름캠프 봉사자 모집

캠프 장소 : 산천가든 유원지

캠프 기간 : 7월 16일(토)~7월 17일(주일)

※ 1박 2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 사무엘 교감 (010-5091-1509)

◎ 오늘은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7. 3)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96	821 (39.2%)	774 (36.9%)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차영순 이십오만원

누 계 38,162,600원

◎ 감사헌금 (6월 27일~7월 3일)

익 명 일십만원 전성호 오만원

김태철 일십만원 익 명 일십만원

익 명 삼십만원 송명진 일십만원

최인숙 일십만원 김용균 일십만원

김재균 오만원 김건민 일십만원

김경희(성원자동문) 삼십만원 익 명 일십만원

익 명 오만원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14주일)

교무금 18,150,000원

주일헌금 4,871,000원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헌금 1,672,000원

입당	329	봉헌	210, 510	성체	174, 504	파견	77
----	-----	----	----------	----	----------	----	----

◎ 2022년 상반기 수지보고서

(단위: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교무금	288,667,000	제전비	9,004,000
주일헌금	127,484,000	전교비	12,246,000
감사헌금	50,347,000	단체보조비	27,534,000
기타헌금	8,729,000	주일학교운영비	19,302,000
사회복지후원금	0	교구납부금	68,446,000
성무지원금	16,980,000	특별헌금	19,184,000
특별헌금	19,184,000	사제관운영비	9,800,000
시설헌금	34,184,000	사제성무활동비	7,200,000
기부금	2,780,000	사제특별지원비	3,174,000
기타기부금	0	성무지원비	16,980,000
성물판매	0	사제교육비	2,100,000
교구 및 본당행사비	0	신자피정교육비	590,000
사용수입	-	자선찬조비	20,650,000
혼배, 장례	620,000	교구및본당행사비	2,108,000
이자수입	1,281,000	기타행사비	120,000
기타후원금	1,611,000	급여	76,291,000
기타목적헌금	2,884,000	수당	25,286,000
부속단체수입	10,000,000	사무용품비	522,000
		도서인쇄비	1,147,000
		소모품비	2,472,000
		수도광열비	35,013,000
		수선비	3,343,000
		차량비	712,000
		임차료	924,000
		용역비	8,353,000
		통신비	2,859,000
		복리후생비	7,738,000
		시설비	2,480,000
		잡지출	974,000
		기타	2,561,000
		이자비용	
기타수입	112,000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8,867,000
수입합계	564,863,000	지출합계	397,980,000
전월이월(현금)	1,964,000	현금	1,730,000
전월이월(예금)	299,685,000	가용 예금	315,545,000
비품처분	174,000	비품구입	2,324,000
퇴직급여충당금	84,701,000	퇴직급여충당금	75,834,000
건물감가적립금	35,022,000	건물감가적립금	185,122,000
기타예금	81,159,000	기타예금	89,033,000
지출초과	-	차기이월	166,883,000
합계	1,067,568,000	합계	1,067,568,000



가 난 한 이 들 아 하느님 을 찾 아라 너 희 마 음 에 생 기 를 돌 우 어 라